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4년도 표어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잡혀 죽을 양떼"

(스가랴 11장 1절-14절)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들을 가련한 양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들은 잡혀죽을 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할 멸망 받을 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끼를 받는 가련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이스라엘의 멸망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심판,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레바논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산, 요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AD 68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 사망 뒤에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AD 70년 7월 17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수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 죄값은 우리와 우리자손이 받겠습니다."라고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디도 장군은 자기 군대를 성전에 주둔시키고 71년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끝을 보았고, 유대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시되 그 악은 악대로 심판하십니다. 로마가 유대백성을 괴롭혔지만 로마 역시 망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 목자의 역할

4절에서 14절까지는 목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 즉 메시야가 백성인 양들을 위해 섬기는 도리를 다했지만 양들은 목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거절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버리므로 양들이 멸망당하는 예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죽을 양떼를 먹이라(4)" 이것은 선한 목자의 보호에 대적하고 죽을 운명에 처한 양떼를 말합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짓밟힌 유대 민족을 잡힐 양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거민 무려 150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5a)" 즉 로마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 이득을 챙기듯 유대인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5b)" 즉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6)" 이웃과 임금, 즉 내외로 고난이 와도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는 비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7a)" 가련한 양은 겸손한 양 때, 즉 남은 자를 말합니다. 잡혀죽을 양떼 중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양떼를 뜻합니다. 잡혀죽을 양떼인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가련한 양떼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

를 먹일새(7b)" 은총의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또 연합의 막대기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8a)" 여기서 세 목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니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저들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거짓 지도자들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9)" 예수님 음성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오는 파멸로 세 가지 재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죽는 자(질병과 기근), 망하는 자(전쟁), 그리고 피차 살을 먹는(내부적인 알력) 것으로 나라가 쑥밭이 됩니다. 더 이상 은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10a)" 은혜의 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10b)" 모든 백성들, 즉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세운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그 언약을 이제는 폐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를 쳐들어가 망하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11)"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선한 목자가 마지막 거절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너희 품삯을 내게 주고(12a)"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보고 품삯으로 계산해서 지불하라면 얼마를 지불할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았습니다. 이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 31절에 의하면 소가 남의 종을 잡아 죽일 경우 그 종의 몸값으로 주는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겨우 은 30개의 가치밖에 없을 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밖에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13)" 즉 더러운 것의 대명사인 토기장이에게 던진 것입니다. 14절에 들찌 막대기, 즉 연합의 막대기가 꺾어버립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 내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들을 가련한 양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들은 잡혀죽을 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할 멸망 받을 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끼를 받는 가련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04 사명자 대회 한 주 앞으로

- 사명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까? -

해마다 교회 설립일 50일 전에 열리는 사명자 대회는 기도와 전도 대회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8대 기도제목을 갖고 특별새벽기도(11.22~27), 24시간 연속기도(101호), 다니엘 기도(오전 오후 10시에 2분씩 드리는 열열이 기도) 그리고 제출된 기도제목으로 중보기도를 한다. 또한 전교인이 1인 1명 이상이 기간 동안 전도한다. 노방 전도, 축호전도, 문서전도를 하고 잃은 양 찾기, 우리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을 다시 초청하는 Home Coming Day(11월27일 토요일 5시)행사가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암송대회(10월24일: 예선, 29일: 본선)도 있다.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기회를 만들자.

- 기간: 10월10일(주)~ 11월28일(주) 50일간
- 주제: 성령 충만하여 중인의 삶을 살자(행 1:8)
- 표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
- 사명자 대회 새벽기도회: 11월22일(월)~ 27일(토)
새벽 5:00 ~ 6:00(강사 이종운 목사)
- 주제찬송: 179장(이 기쁜 소식을)
- 행동강령:

- (1)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 (2) 예수의 증인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자
- (3) 민족을 복음화 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우자

- 기도제목 -

- (1) 사명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 (2) 성령의 사람이 되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 (3)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 (4)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충만하게 하소서
- (5) 모든 교구와 다락방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6) 모든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서울교회 새 예배당이 사명자들의 헌신으로 헌당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 (8)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구국기도회

나라와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구국기도회가 열린다. 많이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 일시: 10월4일(월) 오후 3시30분 ~ 5시
- 장소: 시청 앞 서울광장
- 주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제2회 화요 정오음악회 시작된다

10월12일(화) 12시 본당에서 첫 연주회 열려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교회는 지난 봄에 처음으로 화요 정오음악회를 개최하여 성도와 이웃주민이 함께 찬양의 악기라고 하는 파이프오르간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한 바 있다. 이제 가을을 맞아 제2회 화요 정오음악회 가을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가을시즌은 지난 번 봄 시즌과는 달리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로 준비된다.

교회는 오르간과 함께 하는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의 잔치에 많은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고 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아름다운 음악도 감상하고 전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관람석으로 본당 3층을 사용하게 된다.

연주회 순서는 다음의 표와 오늘 주보와 함께 삽입된 팸플릿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 (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

- 10월 12일: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Oboe and Organ)
성필관(오보에), 오자경(오르간)
- 10월 19일: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Flute and Organ)
심재연(플루트), 박혜선(오르간)
- 10월 26일: 트럼펫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Trumpet and Organ)
박상미(트럼펫), 오신옥(오르간)
- 11월 2일: 호른 앙상블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Horn Ensemble and Organ)
권문용 최미선 소진선 (호른) 강민정(오르간)
- 11월 9일: 오르간 듀오 연주회
(Organ Duo Concert)
이성심, 강혜미(오르간)
- 11월 16일: 찬송으로 꾸미는 음악 예배
(Hymn Festival)
김선아(오르간), 연세 스콜라 칸토름

마태복음 강해 시작된다

오늘 찬양예배부터

우리교회는 지난 9월5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담임목사이신 이종운 목사의 아가서 강해를 은혜 중에 마친바 있고 이제 10월 첫주일이 되는 오늘 찬양예배시간부터는 새로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된다.

신약성경의 맨 처음인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고 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기도회

10월10일 10시40분 601호

고등부(부장 이복규 장로)에서는 상반기(3월28일)에 이어 하반기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기도회를 갖는다. 이번 기도회에 학부모님들과 기도결연자들께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꾸며 열심히 일한 보람을 추수의 계절에 맛보듯, 수험생들도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9월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리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9월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동엽 강우식 강준구 강창진 강하연 강한섭 강환식 구재모 김경현 김노아 김미진 김민선 김병일 김선홍 김성준 김수현 김영태 김예순 김옥선 김운상 김이광 김인석 김자현 김장미 김정자 김종근 김지덕 김창훈 김하나 김한별 김현솔 김현덕 김현호 김형근 김형철 나현태 류경학 박금례 박명자 박애덕 박혜진 방정미 배건희 배수진 서은석 성동훈 신민숙 신봉철 신선호 신종현 신현승 안성아 양기남 양선화 양재준 양희정 양희진 오병석 오완근 오운택오현근 유현주 윤광암 이기쁨 이기철 이돈직 이두현 이보희 이봉삼 이상섭 이소연 이순금 이순복 이영미 이완선 이유안 이윤정 이윤희 이정숙 이정환 이정희 이춘삼 이필 이희진 임재형 임재환 장문경 전대영 전정순 정관원 정복식 정선모 정은희 정재욱 정재현 정재훈 정진희 조미향 조선희 조영석 조예진 조호연 주용준 채희란 최미석 최병진 최승호 최영민 최은미 최현수 최희택 추미자 한현숙 홍민규 홍성국 황미숙 황용경 Kristin Dover 이상 118명

장로가정탐방 - 서문석 장로 가정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서문석 장로님 가정은 부모님(서귀용집사, 정복순 권사), 한춘홍 권사님, 그리고 준호, 지영, 준우, 3대가 모여 사는 일곱 식구 대가족이다.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개척하며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깊은 우애와 자기 신앙을 잘 지켜가는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럽고 감사하시다고. 한춘홍 권사님과 장로님은 교직 생활시 숙부와의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3남 4녀의 형제들이 한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던 권사님 가정을 접하면서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전 받고 이끌리게 된 것이 오늘의 장로님 가정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69년, 결혼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12년이 걸렸다. 30여 년이 흐른 오늘 날 장로님 가정은 심령이 상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28년 10개월의 공직생활을 접고 서울교회 사무국장으로서 부임한 것은 2000년 3월, 30주년 근속을 앞두고 일수를 채우지 못한 안타까움이 남았지만 교회의 부름을 받고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평소 정년 퇴직 후 원없이 봉사하리라 소원하던 장로님의 기도가 조금 빨리 응답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지하 3층까지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으로 예배당 모퉁이에 앉아 홀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를 생각할 때마다 이 모두가 축복임을 가슴 깊이 느끼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로 열심히 섬기는 사무국 직원들도 감사하고, 매일 아침 9시, 30분간 경건의 시간과 기도회를 통해 시작되는 업무들도 모두 주의 일이니 이를 통해 사무국이 탄탄하여짐을 감사하며 또한 새가족부에서 봉사하시는 한춘홍 권사님의 헌신적인 기도와 희생적인 삶,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이 더욱 아름답다.

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며 교회의 세심한 부분과 성도들에 대한 식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피부로 느끼면서 아버지와 같은 목자의 마음을 더욱 사모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감사한 것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이다. 늘 가까이에서 믿는 자의 모범을 보여 주시고 상치받고 시험당할 때마다 용기와 위로를 주셨던 형님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항상 붙들어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볼수록 차고 넘쳐서 늘 사랑의 빛을 마음에 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논현동, 반포동을 거쳐 대치동으로 오면서 초심의 신앙, 가족처럼 지내던 초대교회의 따뜻한 모습들이 희석되어 가는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역과 비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서울교회의 기저에 면면히 흐르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장로님은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의자 하나도 매만지며 닦고 살피던 모습, 교회를 아끼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섬기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이기에 때문이다.

나소정(편집부)

장로님의 하루 일과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9층부터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멀리서만 뵈던 목사

순례자 특별 기사 - 개천절과 기독교

단군상 문제의 현주소와 기독교인의 역사의식

오늘 10월 3일은 우리나라 국경일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개천절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새삼 의문스러운 것은 왜 개천절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돼 있는지, 무슨 이유로 개천절을 해마다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개천절은 단군기원의 원년이라고 하는 BC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고 한다. 단군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대종교에서 "개천절"이란 명칭을 지었고 1900년부터 해마다 종교행사를 열었다. 이것을 일제강점기 때 상해임시정부가 민족의식을 고취 한다는 명분으로 발전시켜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공식 행사를 열더니, 광복 후엔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며 1949년부터 국경일로 정식 제정을 해버렸다. 신도 수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종교에서 만든 그들만의 기념일을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정해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래 들어서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98년부터 한 사설단체가 통일을 기원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280여 학교와 공원 등에 총 369개의 단군상을 건립한 것이다. 교계는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전국 곳곳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 성명과 집회가 이어졌다. 단군의 실체가 학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실존성이 희박한 신화속의 인물임에도 그 상을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세워 참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적인 도움은 커녕 오히려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 교계의 입장이다.

이에 주목 할 것은 지난 8월 모 단체 등이 제기한 '단군

문제 통합공과(한기총 제작)에 대한 출판,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단군문제 통합공과'는 단군의 종교화를 경계하기 위해 지난해 한기총이 발간한 교육교재다. '역사를 바르게, 소망을 주님께'란 제목으로 교회와 교회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생용과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청장년용으로 구분했으며, 현재까지 4만여 권이 배포됐다.

한기총 산하 단군상건립반대 대책위는 지난 1999년 7월 발족한 이래 전국적으로 단군상 철거를 위한 집회와 기도회 등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단군문제 통합공과'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공과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단군상 건립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교인들에게 신앙상 혼란을 방지하고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종교 자유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며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기각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출판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다, 그 단체에서 대법원 재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군문제 통합공과' 발간을 둘러싼 1년여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종결됐다.

교계의 반대로 현재 추가건립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단군상이 전국에 수백 개가 남아있다. 나아가 이 단체 대표인 이 모씨의 '홍익인성'이 국경교과서에 채택되고, 이 대표가 단군 숭배를 표방하며 창립한 단학선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통일교식 사업 확장을 벌이는 등 단군 숭배 진영은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 행태

가 폭로되면서 그 단체가 역사왜곡 규탄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등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몇몇 시민단체와 합세해 거리행진이나, 각종 퍼포먼스로 역사왜곡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단군을 신격화하며 숭배하는 단체가 우리 역사의 지킴이를 자처하며 역사왜곡 반대운동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역사관과 의식을 갖춘 신자라면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의 몫이며 이와 같은 단체에 내버려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독교인은 근대 이후 민족의 위기 때마다 감당하던 기독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상기하고, 민족주의에 편승한 역사 왜곡이 국내외적으로 범람하는 시기에 합리적이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바른 목소리를 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단군상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이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끊임없는 기도도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민철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전도학교를 마치며...

복음으로 효도합니다



정동학 집사
(전도학교 10기, 8교구)

이번 전도학교에서 훈련 받으면서 전도하는 일꾼으로까지 삼아 전도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2주 전도교육 동안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5월에 피택 집사가 되고 나서 아내가 당시 안수 집사되던 장인 장모님 전도 목표를 삼으시지요 하여서 그래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 6월 초 아무런 증세도 없었던 장인께서 폐암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할 수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혼도 구원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큰 일이라 생각하여 예수 믿으시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구 목사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가시기로 약속도 하셨으나 시골에 가신 후로는 교회에 나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74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리라 쉬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여 6월27일 주일 새벽 만사 제쳐두고 차가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오전 10시 10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저희를 보시고 놀라시며 무슨 일이나고 하시기에 아버지 어머니 교회 인도 하려고 왔다고 말씀 드리고 장성읍에 있는 희망교회에 모시고 가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생전 처음 나가는 교회생활이라서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두 달이 다된 지금까지 꾸준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9월초에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이웃 가족 5분을 교회로 인도하였으며, 이 분은 또 자기 친구를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다른 이웃 한 가정도 곧 우리교회에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10기 전도학교 교육이 그 동안 전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전도활동도 잘 못하던 체계는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말을 어디서 꺼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간단히 소개하고 교회로 이끄는지를 배워주는 매우 유익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몇 가정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통해 이제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전도일꾼으로 사용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천국일꾼 양성 - 기독교인과 건강

현대인의 호흡과 건강

안철민 박사 (영동세브란스 내과 과장 / 연대 의대교수)

호흡의 기원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호흡은 들이마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경우 배속에서 엄마의 태반을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숨을 쉴 필요가 없다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기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분비물을 다 없애면서 숨을 들이마시며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 기적입니다. 아기가 힘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맥박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뛰면 정상입니다. 평소의 이 정도 맥박보다 20회 이상 더 뛰면 그것은 이상이 생긴 맥박입니다. 이 맥박과 호흡의 수는 5:1의 관계에 있습니다. 맥박이 다섯이면 호흡은 하나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호흡은 1분에 12회에서 20회 정도가 정상입니다. 한번 숨을 쉬는데 3초에서 5초 정도가 걸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호흡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쉬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통상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비율을 1:2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한 호흡을 3초로 본다면 1초를 들이마시고 2초를 내쉽니다.

숨을 쉬는데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은 횡경막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목 부분의 경추에서 시작합니다. 이 목 부분을 다치면 자칫 무호흡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을 얼마나 못 하면 위험에 빠질까요? 약 3분 정도입니다. 3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맥박은 한번 태어나서 뛰기 시작한 뒤로 인간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긴장되거나 분노할 때 심장이 마구 뛰는 것처럼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이 자동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는데 공기중의 산소가 폐를 통해 혈관으로 가면 혈관의 피가 깨끗하게 됩니다.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숨을 내설 때 기로 빠져나갑니다. 숨을 멈추면 이산화탄소가 못 빠져나가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평상시 40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1만 높아져도 뇌 안에는 이것을 감지하는 중추가 있어서 빨리 숨을 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호흡과 관련해 나타나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은 숨을 제대로 못쉬거나 기침을 연속해서 많이 하고 질은 가래를 뱉기도 합니다. 천식은 잘 낫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식을 일으키는 요소를 잘 조절하면 완전치료가 가능합니다.

천식이 있으면 호흡장애가 있는데 이럴 때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니 지푸 찬물을 찾는데 이것은 기도에도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찬물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병이 낫기 전에 심한 운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흡연은 기도자극을 주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아주 뜨거운 사우나나 가슴기를 코에 대는 것도 호흡기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7회 메시아 대 연주회 연습 시작

12월16일(목)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03년 12월 서울교회가 주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던 교회연합 메시아 대연주회가 올해에는 소망교회 주관으로 오는 12월16일(목) 새로이 단장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제37회 메시아 합동연주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11일(월)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 두 차례씩 소망교회와 영락교회에서 민인기 교수(소망교회 찬양대 지휘)의 인도로 연합연습을 할 예정이다. 바 작년 주관교회로서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찬양대원은 물론 관심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등정

- 이종윤목사는 8일(금) 한기총 주기도문·사도신경 제번역 위원회를 소집한다.
- 주간식당 봉사: 루디아여전도회(10월 3일) 뱌뱌여전도회(10월10일)
- 금주의 식사: 4교구 가족일동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주일저녁 9시5분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i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4 사명자대회를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곡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